

## 各國의 圖書館을 돌아보고

崔 根 滿

(韓國圖書館協會 事務局長)

필자는 美國務省의 招請으로 지난 해 10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滿 62일간 美國, 英國, 佛蘭西, 伊太利, 덴마크, 스위스, 홍콩, 臺灣, 日本 등 여러 나라를 訪問하면서 圖書館과 教育機關, 文化施設 등을 두루 살펴 볼 機會를 가졌다.

美國에서는 주로 圖書館이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에 미치는 影響과 教育施設로서의 차지하는 比重이 어느 정도이며, 또 圖書館 奉仕의 擴大와 發展을 가장 合理的으로 運營하는 方案이 무엇인가에 대한 調査와 兩國의 協力問題에 대하여 그 곳 指導者들과 意見을 나누었다.

구라과 여러 나라에서는 주로 그곳 圖書館들이 오랜 文化遺産을 保存, 維持, 管理하여 많은 外國의 觀光客을 유치하는데 어떠한 役割을 擔當하여 왔는가에 關心을 가지고 돌아보았으며, 美國과 歐羅巴 諸國의 圖書館制度에 대하여 比較해 보았다. 그리고 그 곳 國民들이 圖書館에 대한 關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내 나름 대로 觀察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日本에서 아시아가 지니고 있는 特有의 圖書館 현안 問題들에 대하여 그 곳 指導者들과 意見을 交換하고 相互 協力方案을 繼續 研究하여 相互發展을 위한 紐帶를 強化키로 하였다.

이제 美國과 유럽, 아시아로 나누어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 1. 美 國

지난 해 10월 6日 하와이의 호놀룰루(Honolulu)에서 始作하여 미주 대륙 동부의 와싱턴(Washington, D.C.) 보스턴(Boston) 뉴우요크(New York) 뉴우 헤이븐(New Haven) 피츠버어그(Pittsburgh)와 中部에서 시카고우(Chicago) 테라 호트(Terre Haute) 데이튼(Dayton) 이이튼(Eton) 인디어내폴리스(Indianapolis) 西部에서 시애틀(Seattle)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버어클리(Berkeley) 南部에서 뉴우올리안즈(New Orleans) 케이프 케네디(Cape Kennedy) 등 10여개 도시에 있는 14個의 공공도서관, 25個의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20餘個의 연구기관과 企業體 도서관 그리고 10餘個의 도서관학교와 도서관 관계 단체

를 訪問하였으며 많은 圖書館 專門家와 意見을 交換하고 兩國의 協力問題를 論議한 바 있다.

文化施設로는 가는 곳마다 여러 종류의 博物館 등을 구경하였다.

美國은 歷史가 짧은 나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힘을 합하여 歷史를 만들고 있는 것을 인상깊게 느꼈다. 世界 여러 나라에서 活動하는 美國인들이 各國에서 나오는 印刷物은 勿論 骨董品과 심지어 오래 된 옹기 조각까지 수집하여 미국의 각 圖書館이나 博物館에 제공하고 이들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구입 또는 수집된 것과 같이 分類, 整理, 保管하고 있기 때문에 美國 市民이든 누구나 손쉽게 자기가 열고자 하는 知識이나 情報를 圖書館이나 博物館에 가서 入受할 수 있도록 制度가 마련되어 있다. 個人이 수집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집한 사람이 自己 소유로 하기에 앞서서 지방도서관이나 박물관에 기증하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한 것을 어느 지방에서도 發見 할수 있었다. 우리도 개인이 소장한 자료를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구입하던지 기증받아 여러 사람이 아무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간절하다.

미국은 각급 도서관이 완전 개가식으로 운영되며 學問別專門司書(主題別 參考司書)들이 배치되어 참고 봉사를 담당하고 있고 複寫器가 도서관마다 數台씩 設置되어 利用者가 10전내지 20전을 기계에 삽입하면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貸出 등 업무가 대부분 기계화 되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구하는데 조금도 지체가 없이 이루어지고, 문제 질문에 대한 解答이 될 수 있는 자료가 即時 提供되고 있다. 이와 같이 利用者를 위하여 圖書館이 積極的인 奉仕를 提供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특히 이번 旅行중 인상 깊었던 것은 白聖館과 UN 本部의 합마솔드 기념도서관의 參觀이었다.

그러면 다음에 公共, 大學, 국회, 미국 도서관협회, 백악관도서관, UN본부도서관, 케이프 케네디(Cape Kennedy)宇宙空港의 順으로 개괄적인 것만 간추려 보기로 한다.

## A. 公共圖書館

필자가 돌아 본 대표적인 圖書館은 하와이 州立圖書館, 와싱턴(Washington, D.C.) 뉴우요크(New York) 시, 보스턴(Boston)시, 피츠버그(Pittsburgh)시, 시애틀(Seattle)시, 시카고(Chicago)시, 등의 中央圖書館과 보스턴(Boston)시 附近에 있는 렉싱턴(Lexington)시의 작은 圖書館 등 모두 10餘個의 公共圖書館을 見學하였다.

美國의 公共圖書館은 1,200여 個館으로 약 3億에 가까운 藏書를 所藏하고 있다. 人口 1人當 약 1.5책을 갖고 있는 꼴이 된다.

어느 地方에 가든지 完全開架式의 아담한 現代式 圖書館이 있고 이 도서관은 美國의 市民權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간단한 登錄을 한 후 自由스럽게 資料를 利用하고 貸出해 간다. 特히 老年期の 市民과 主婦와 어린이들이 많이 利用하며 研究를 위한 사람들은 大概 大學이나 專門分野別 도서관을 利用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는 圖書만이 아니고 印刷物은 거의 모두 蒐集, 保存, 活用되고 있으며 視聽覺資料인 테코오드, 녹음 테이프, 사진 등은 물론 畫家들이 그린 그림도 購入하여 이를 整理, 貸出해 주고 있다. 이 그림은 各家庭에 情緒的인 장식用으로 長期貸出되기 때문에 그림틀 뒤에 Book Pocket 과 Card 가 붙어 있다.

美國의 市民들은 도서관세를 내고 있으며 이 도서관세를 내는 만큼 充分히 圖書館을 活用하고 있었다. 市民이 負擔하는 도서관세액(人口 1人當 약 4\$)은 各州마다 다르며 地方 政府의 關係者와 市民 代表로 構成된 도서관運營委員會에서 豫算을 策定하고 圖書館運營方針이 決定되고 있다. 특히 그 地域社會의 有志들이 個人的으로 도서관구입비를 寄贈하는 例가 許多하며 도서관 建物은 大部分 카아베기(Carnegie)財團 등에서 經費를 負擔(寄贈)하여 新築한 것이 特色이다.



(Seattle Public Library)

美國에서의 公共圖書館은 文字 그대로 全國的으로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망(網)을 이루고 充分한 機能을

發揮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學校教育의 重要性을 認定하는 것과 같이 社會教育機關인 公共圖書館이 市·郡·邑·面 單位까지 빠른 期間내에 設置되어 全國的인 網이 形成되고 學校教育을 받지 못한 市民과 學校를 卒業한 後 社會에 進出한 各界 各層의 市民들이 自由스럽게 도서관 資料를 利用하여 自己의 專門的인 知識을 繼續維持, 發展시켜 國家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社會教育의 根本的인 바탕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 市·郡·邑·面 圖書館은 各 部落에 設置된 마을文庫를 吸收하여 새로운 임을 거리를 될 사이 없이 提供, 利用케 하므로써 農漁民의 技術習得과 教養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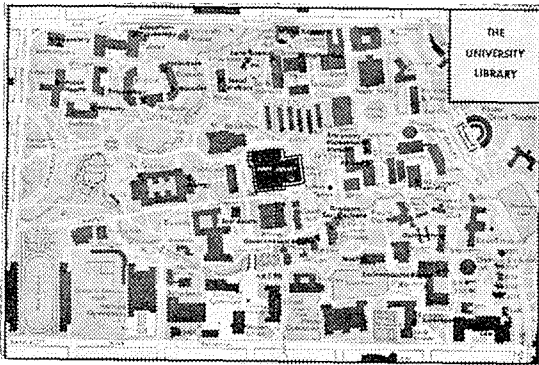
美國의 圖書館人들도 待優問題에 대한 不平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長點인 協同心의 發揮과 作業의 共同推進, 相互貸借制, 印刷 Card의 共用 등의 方法으로 奉仕 擴大에 勞力을 集中하고 있는 點이 매우 感銘 깊었다.

## B. 大學校圖書館

筆者가 본 대학은 하바드 (Harvard)大學校, 예일 (Yale)大學校, 콜럼비아(Columbia)大學校, 인디애나 (Indiana) 州立大學, 피츠버그 (Pittsburgh) 大學校, 캘리포니아(California)大學校 (Berkeley), 스탠포드 (Stanford)大學校, 와싱턴(Washington)大學校, (Seattle) 시애틀, 인디애나(Indiana)大學校 (Bloomington), 일리노이스(Illinois)大學校 (Urbana), MIT工科大學校, 하와이(Hawaii)大學圖書館 등 20餘個館을 見學하였다.

美國의 大學教育은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과는 概念이 다른 것이다. 大部分의 大學이 大學院 教育을 中心으로 교과과정은 編成되어 있다. 즉 대학원생이 대학생 수보다 더 많다. 하바드(Harvard)大學인 境遇 在學生數가 15,000名 가운데 大學院生이 약 9,000名이고 大學生은 6,000名이다. 各 州立大學 역시 이와 같은 比率이며, 우리 나라에는 私立大學의 在學生數가 國立大學보다 훨씬 많으나 美國은 私立大學보다 各 州立大學의 學生數가 더 많다. 州立大學은 大概 30,000 餘名 가까운 在學生을 가지고 있다. Campus도 우리 나라의 Campus 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市內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어디부터 大學境內인지 分辨하기 어려운 學校가 大部分이다. 그렇기 때문에 公共圖書館이 大學構內에 자리잡고 있는 곳도 더러 있다.

많은 大學 建物가운데 가장 中心部에 제일 크고 좋은 建物이 바로 中央圖書館이다. 中央圖書館은 主로 大學院生이 利用하나 學部 學生과 教職員도 누구나 自由스럽게 利用할 수 있다.



(대학구내 중심에 자리잡은 도서관 중앙 흑선부분)

Main Library의에 各 建物마다 圖書館이 하나씩 있다. 예를 들면 하버드(Harvard) 大學校에는 크고 작은 圖書館을 합하여 95개의 圖書館이 800만권에 가까운 藏書를 分散 所藏하고 閱覽室, 書庫 어디서든지 自由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資料를 얻어 研究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方法은 美國內 어느 大學이나 마찬가지로 大學構內에 수십개의 크고 작은 圖書館을 가지고 있다.

中央圖書館에는 學校內의 各 圖書館에 散在되어 있는 資料의 카아드가 全部 作成 配列되어 어떠한 資料든지 目錄만 찾아보면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을 곧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美國의 大學教育은 圖書館이 中心이 되어 짜여진 Curriculum으로 授業이 進行되고 있다. 教授나 學生이 自己가 研究하는 內容과 關聯된 많은 資料를 通하여 充分히 研究하여 廣範圍한 知識을 吸收 消化하도록 指導 訓練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圖書館에는 專攻分野의 博士學位를 가지고 圖書館學을 공부한 專門司書(主題別 參考司書)들이 學問分野別로 參考業務를 擔當하여 專門의 質問을 하여오는 學生이나 教授에게 適切한 解答이 될 수 있는 資料를 案內하여 주고 있었다.

資料의 配架는 完全開架式의 主題別 配架가 많다. 이제 새로 짓는 大學圖書館은 各급적 地下에다 設署하

는 경향이 있다. 예일(Yale)大學의 貴重本圖書館 閱覽室과 事務室이 地下에 있으며 中央圖書館 本館 增築計劃도 地下에 設計되어 工事が 한참이었다. 일리노이스(Illinois) 大學 學部圖書館도 地下에 設置되어 있다.

地下에 圖書館을 設置하는 理由로는 地上建物들의 風致를 그대로 維持하고 地上을 活用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圖書館 職員의 組織面을 보면 대개 200~400 餘名の 職員이 수백만권의 圖書館 資料를 管理하고 利用시키고 있으며 圖書館長 밑에 專門職으로 2名の 副館長과 3名(대개의 경우)의 助館長이 業務를 分野別로 管掌運營하고 있다.

### C. 美國議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

美國議會圖書館은 現在의 建物이 크고 雄壯하며 內部の 華麗한 壁畫 等은 자랑거리의 하나였다. 副館長 로렝(John G. Loreng) 씨의 설명에 의하면 本建物은 지금부터 67年前인 1903년에 建築되었는데 內部가 大部分 大理石(本館)으로 天葬의 그림은 藝術의 美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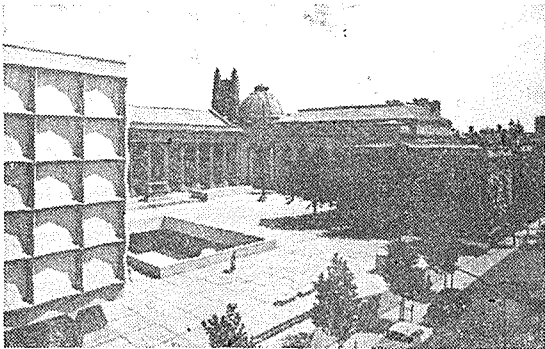
美國의 獨立記念日인 7월 4일과 크리스마스를 除外하고 每日 午前 9시부터 午後 10시까지 開館하는 本圖書館은 1,600餘萬卷의 藏書가 5,000餘名の 職員에 의하여 管理, 利用 되고 있다.

하루에 들어 오는 資料가 10萬種으로 이것이 地下 4層과 地上 4層의 本館과 別館에 主題別로 配架되어 利用者가 自由스럽게 活用할 수 있으며 世界 各國의 資料가 收書되는대로 機械의 力으로 처리 정리되고 있다. 目錄部에만 從事하는 職員도 約 900餘名이 되며 東洋部에는 韓國, 中國, 日本의 資料가 大部分이고 기타 아시아 資料도 蒐集하고 있다. 韓國의 資料는 梁基伯先生께서 20餘年間 努力한 보람으로 約 40,000餘卷의 藏書를 所藏하였다. 大端히 所重한 貴重本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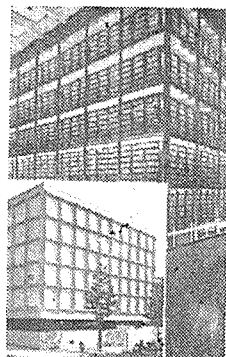
이 圖書館에서 하고 있는 立法調査活動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立法調査部에 만도 職員이 約500名이 일하고 있으며 수십종의 印刷物이 生産되어 立法調査資料로 提供되고 있었다.

### D. 美國圖書館協會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美國의 3大都市의 하나인 시카고(Chicago)市에 자리잡은 美國圖書館協會는 地下 1層, 地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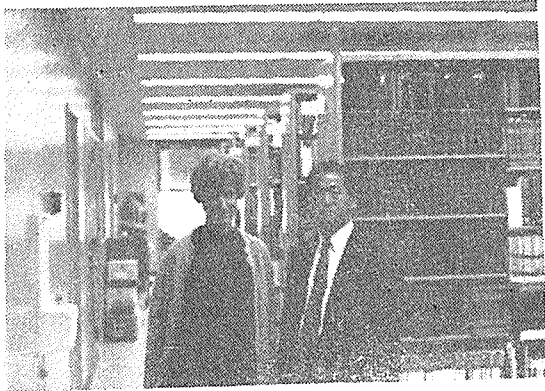
(예일(Yale)대학의 귀중한 도서관)



5層의 會館을 가지고 있다. 事務局長 크리프트(David H. Clift)씨와 教育部長 어사임씨(Lester E. Asheim)를 만나 意見을 나누고 協會 運營事項을 들었다.

70年度 年間豫算은 약 12億8千萬원(\$400萬×320萬)으로 이 중 會費 收入이 豫算의 3분의 1인 4억2천餘萬원(\$130萬) 출판물 판매수입이 3억2천萬원(\$100萬) 財團補助(록펠러, 카네기, 포드, Knapp 등) 3억2천萬원(\$100萬), 정부보조 2억7천萬원(\$70萬)의 收入으로 各種 行사와 出版物 製作, 諸會議費 및 기타 事業費에 充當하며 250名 職員중 이 會館에서 200名이 勤務하고 50名은 美國內 各地에서 協會일을 하고 있다. 이밖에 協會 基本 基金으로 1920년에 카네기財團에서 6億4千萬원(\$200)을 기부받아 銀行에 豫金하여 지금은 12億8千萬원(\$400)이 豫置 되어 있다. 이 基金에서 나오는 年間 銀行金利 3%가 매년 基金에 增加되는데 金額으로 換算하면 年間 3억7천餘萬원(\$116,000)이 늘어가고 있다. 100年の 歷史를 가진 同 協會가 오늘의 基盤을 닦기까지 歷代 役員들과 事務局長의 努苦와 會員들의 協力도 컸겠지만 美國 國民들의 協同과 協助精神이 뭉친 結果라 하겠다. 美國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事業家들이 돈을 벌 때는 악착같이 1,2불을 따지고 있으나 벌어들인 돈을 쓸 때는 보람있고 값있는 社會事業에 아낌없이 쓰고 있음은 오늘의 美國으로 發展시킨 原動力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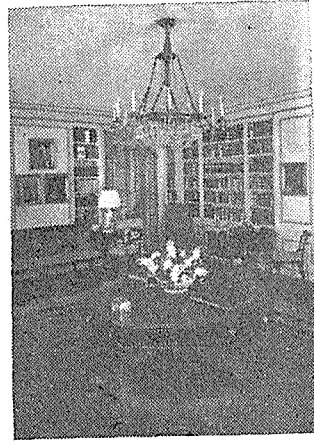
우리 協會는 언제나 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筆者의 말문을 막았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과 같은 Tempo 로 協會가 發展되어간다면 80年後에는 可能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自慰를 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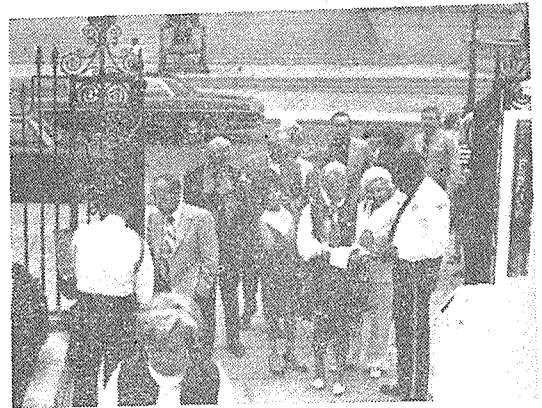
### E. 白堊館圖書館

10月 13日은 白堊館이 市民들에게 公開되는 날이 었다. 國務省에서 보내 준 出入證을 가지고 아침 8時 많은 美國市民들과 같이 정해진 코스에 따라 白堊館 북도에 들어 섰다. 案内員의 說明을 들으며 북도를 걸 으면서 북도양편과 방마다 歷代 大統領과 그 부인들의



(白堊館圖書館)

肖像畫가 變色되지 않은 채 正중하게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大統領이 執務하던 什器와 使用하던 食器類등 이 그대로 保存 되어 있다. 현관 왼쪽에 자리잡은 白堊館 圖書館은 歷代 大統領의 著書와 家族에 關한 資料 등, 精選된 약 3,000 餘卷의 冊이 所藏 되어 大統領과 그 家族은 勿論 白堊館 職員들이 利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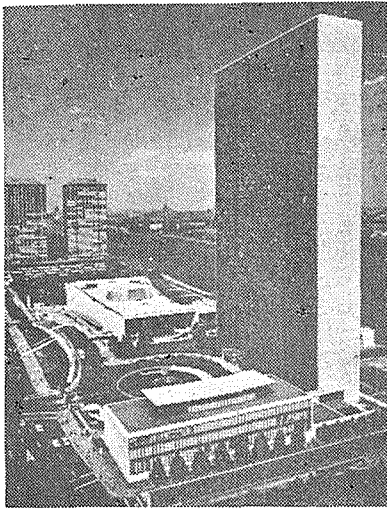


(白堊館 열문 入口의 美國市民)

### F. UN 本部 및 함마술드 圖書館

UN本部는 뉴욕(New York)시 42街 東쪽 江변에 2萬坪의 壘地위에 자리 잡고 있다. 正門 앞에 36層으로 우뚝 솟아 있는 建物이 本部 事務局이며 왼쪽에 平凡하고 넓은 室內體育館 같이 생긴 4層의 建物이 本會議場과 安全保障理事會, 信託統治理事會, 經濟社會理事會 등의 會議場으로 室內는 各國에서 寄贈된 그림 등 귀한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다. 왼쪽 庭園 건너 편에 20여層의 建物 두 개가 各國 代表들의 事務室이다. 우리 나라 UN 주재 大使도 이 建物내에 자리잡고 있다. 正門에서 오른 쪽 4層의 建物이 UN本部 圖書館인 함마술드(Hammarskjold;前 UN事務總長)記念圖書館이다. 이 圖書館 閱覽課長인 가드(P.K. Garde)씨의 안내로 圖書館을 구경했다. 이 사람은 印度의 圖書館 專門家였다. 이 圖書館에는 英文으로 된 各國의 參考文獻과 資料가 蒐集 整理되어 各國의 代表와 事務局 職員에게 한하여 利用시키고 있다. 약 20,000권의 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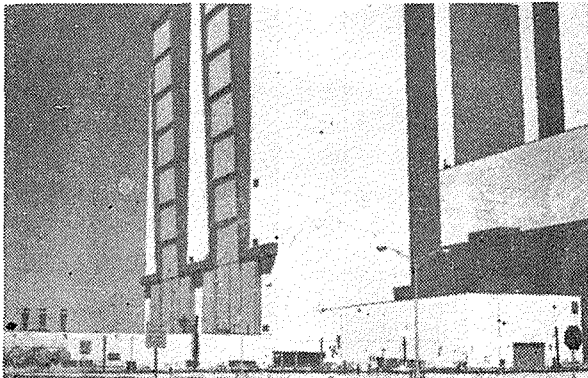
책을 가지고 있고 完全開架式으로 運營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資料도 多少 所藏하고 있으며 英語로 된 것이 있으면 기증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기름진 20,000坪의 地는 1945年 루펠러財團에서 全 世界의 人類 平和를 위하여 기증한 땅이라고 한다. 前面 國기계 양대에는 100餘 會員國의 國旗가 나부끼고 있으나 우리 태극기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分斷國家로서의 서글픈 景을 여기서도 뼈아프게 느꼈다.



G. 케이프 케네디(Cape Kennedy) 宇宙空港

케이프·케네디(Cape Kennedy)宇宙空港은 美國南部 플로리다(Florida)州 中部 大西洋 海邊에 자리잡고 있다. 前에는 이곳이 荒蕪地였었는데 상당히 넓은 面積을 開發하였다고 한다. 이 곳에는 NASA 센터를 中心으로 海岸에 發射機의 發射대가 設置되어 있다. 自動車로 3時間 以上 돌아다녀야 대부분 구경할 수 있었다.

NASA 本部는 華盛頓(Washington, D.C.)에 있고 휴스턴은 텍사스州에 位置하여 電子裝置로 發射 조종



한다고 한다.

지난 번에 아폴로 13號의 發射光경을 T.V. 화면을 통하여 서울에서 구경한 바 있는데 바로 그 發射대를 이곳에서 직접 바라보니 감개무량 하였다.

그리고 이곳 宇宙博物館에는 美國이 開發한 로켓트의 實物이 처음 것 부터 展示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설명패가 부착되어 로켓트의 發達過程을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앞으로 發射될 아폴로 14號도 發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곳 Cape Kennedy에서 부터 마이아미까지의 해변 곳곳은 「코코아·비치(Cocoa Beach)」로 季節에 關係없이 水泳을 즐기고 있고 海邊의 모래는 마치 밀가루 모양으로 곱다. 물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한 것이 아마 이번 旅行중 가장 오래 머리 속에 남아 있을 인상깊은 곳이 미국 풍치에 하나자 바로 이 케이프·케네디(Cape Kennedy)라 하겠다.



以上 소개한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괄적인 것이며 圖書館(특히 東洋部)別로 자세한 것은 다음 機會로 미루고자 한다.

이번 美國 旅行을 통하여 韓美 兩國의 圖書館 發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專門職 交流와 韓國 司書들의 轉地訓練의 機會를 마련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으며 兩國의 紐帶強化와 國際會議 開催에 대한 協議를 가진 바 있다. 40日間의 美國 滯留중 各 大學과 機關에서 또는 個人이 筆者에게 베풀어 준 好意에 感謝드린다. 특히 美國議會圖書館 東洋部의 양기백 선생과 인디아나(Indiana) 州立大學校 圖書館學科 金重漢 博士 캘리포니아(California) 大學校(Berkeley) 東洋部에 계신 朱龍圭 先生과 그 家族에게 感謝드린다.

(다음호에 계속)